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6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6일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광주 대학들 내년도 입학정원 역대 최대규모 감축

5곳서만 400명…'생존 고육책' 신입생 감축 계획안 교육부 제출

교육부 충원율 기준 지방대에 불리…벼랑끝 내몰고 불·탈법 조장

광주지역 대학들이 2023학년도 신입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감축한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른 조치이자 학령인구(學齡人口) 감소로 심화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25일 광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대학들이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31일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감축 계획을 보면 A대학은 147명에 달하는 모집정원을 줄인다. B대학는 60명, C대학은 94명, D·E대학은 각각 30명을 감축한다. 이들 대학만도 4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최근 3~4년새 150명~300여명에 이르는 신입생 정원을 줄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2024, 2025학년도에도 전학년도 감축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신입생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부당한 정원 감축방식이 지역대학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감축 대상 학교와 감축비율 결정시, 기계적으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구와 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중돼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임에도 그 피해는 지방대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교육부의 현행 대학 평가방식이 유지되면 지역 대학이 고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입학정원 감축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현상이 대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만 보더라도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배 이상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가의 전언에 따르면 교육부의 불합리한 신입생 충원율 기준 등은 사실상 불·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한 대학은 특정 학과에 학생들이 다수 몰리자 불합격 대상 학생들을 정원이 미달한 다른 학과로 지원토록 유도했다.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전과를 약속하기도 한다. 우선 입학한 뒤 1~2년을 마치면 원하는 학과로 옮겨주는 조건이다. 교직원이 나서 입학시킨 학생들이 장기결석하거나 자퇴해 골머리를 앓는 대학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변칙을 써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지역대학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의 붕괴는 학생 유출을 가속화하고 교직원의 실업을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경제와 생활체계를 무너뜨려 종국에는 지역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지역 대학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살아남을 대학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역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은 물론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도 지역미래와 직결되는 인재양성을 맡고 있는 대학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엑스포역 관광객 북적

코로나 19 이후 침체됐었던 관광업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25일 서울 용산을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한 KTX 열차에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합참의장 김승겸 내정 9년만에 육사 출신

대장급 인사…육군총장 박정환 해군총장 이종호·공군총장 정상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인사가 단행되어 군 수뇌부가 모두 교체됐다. 정부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승겸 대장의 발탁은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작전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단행했다.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56·육사 44기) 합참차장, 해군참모총장에 이종호(57·해사 4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 정상화(58·공사 36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또 연합사 부사령관에 안병석(55·육사 45기)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전동진(육사 45기) 합참 작전본부장, 제2작전사령관에 신희현(학사 27기) 3군단장을 각각 임명했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황유성 소장을 대리 보직했다.

이번 대장 인사에서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을 발탁한 것은 9년 만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참의장에 '비육사·비육군' 기조가 뚜렷했었다.

육사 출신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최윤희(해사 31기)·이순진(3사 14기), 문재인 정부는 정경두(공사 30기)·박한기(학군 21기)·원인철(공사 32기) 등이 바통을 이어받아 '육사 홀대'라는 말도 나왔다. /연합뉴스

北, 바이든 떠나자 ICBM 포함 탄도미사일 3발 발사

윤 대통령 첫 NSC 주재 "중대한 도발 강력 규탄"

북한이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리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특히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처음으로 섞어 쏘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보인다. 또 핵 선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에 합참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ATACMS(에이테큼스)를 각 1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했다. 또 F-15K 30여 대의 전투기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해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래 2종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시 발사한 최초 사례"라고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NSC 회의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긴급 통화에서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주 안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통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시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세 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양측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고 긴밀한 협력을 계속 구축해가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